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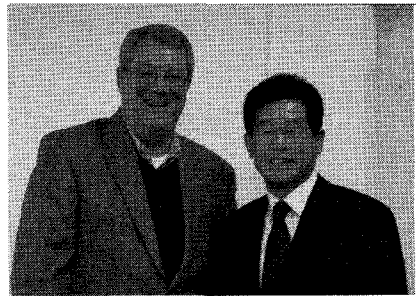


## 협회장 동정

### ① 제 7, 8차 이사회 개최

지난 9월 27일과 10월 25일 제 7, 8차 이사회를 각각 열고 사료용근채류 할당관세율 인하 및 한계수량 증량, 2011년도 항만하역 요금 조정에 대한 검토, 2012년도 사료용 원료 할당관세 적용 추진 상황 점검 등 산적한 업계 현안들을 장시간에 걸쳐 논의했다.

### ② ‘국내외 사료산업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 세미나 참석 및 연사 예방접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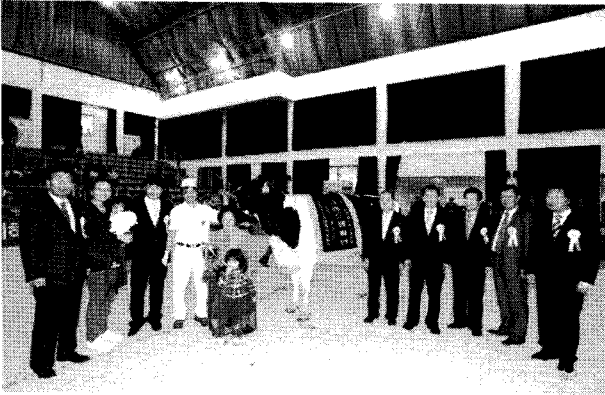
▲ 세미나 연사인 윌리엄 덴크바(左)씨의 예방을 받고 한담을 나누고 있다.

◀ 세미나 전경.

지난 11월 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사료협회와 미국곡물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내외 사료산업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 세미나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이날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자세한 내용은 세미나중계 참조) 이날 세미나에는 15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한편 전날인 10월 31일 이번 세미나 강연차 내한한 D/C Commodities 사 William Dankbar씨의 예방을 받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 '2011 한국 홀스타인 품평회' 참석



▲ 사진 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조남조 회장

지난 10월 19일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주최하여 안성팜랜드에서 열린 '2011 한국 홀스타인 품평회'에 참석하여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업계 주요 인사들과 환담을 나눴다. 이날 행사에서 최고 영예의 상인 그랜드챔피언(국무총리상)은 경북 칠곡군 대흥목장(대표 최광현)에서 출품한 '대흥스테디 미스타 샘 400호'가 수상했다.

● 미국 사료곡물산업 시찰차 해외출장



▲ 사진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가 조남조 회장

조남조 회장을 단장으로 한 미국 사료곡물산업 시찰단 일행은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9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미국곡물협회 초청에 의해 미국의 사료산업 현장을 둘러보고 귀국했다.

● 2011 한국국제축산박람회 참석

조남조 회장은 '친환경 축산, 미래의 녹색 희망'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구 EXCO에서 개최된 '2011 한국국제축산박람회(2011.9.21~9.24)' 개막식에 참석하여 개막을 알리는 테이프커팅을 한 후 업계 주요 인사들과 환담을 나눴으며, 선진, 우성사료, 고려산업, 카길애그리퓨리나, 천하제일사료, 케이씨피드, 이지바이오 등 배합사료전시관을 방문하여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다음날은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전국양계인대회에 참석하여 양계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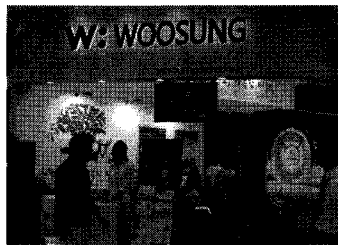
▲ 조남조 회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이 업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 배합사료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는 조남조 회장



▲ 천하제일사료



▲ (주)우성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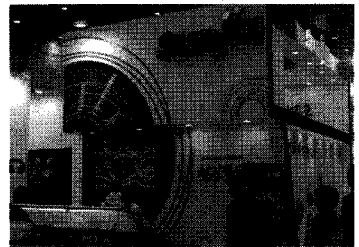
▲ 고려산업(주)



▲ (주)카길애그리퓨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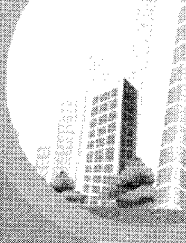
▲ (주)케이씨피드



▲ (주)선진



▲ (주)이지바이오시스템



● '제10회 한우인의 날 및 12주년 전국한우협회 창립기념식' 참석



지난 9월 2일 충남 홍성 홍부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제10회 한우인의 날 및 12주년 전국한우협회 창립기념식'에 참석하여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주요 인사들과 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협회동정

● 추계 체력단련 등반대회



본회는 지난 10월 29일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진안에 위치한 마이산에서 추계 등반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등산, 한옥마을 관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전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 4/4분기 직원 조회



본회는 지난 10월 10일 아침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도 4/4분기 직원 조회를 갖고 임직원간의 격의 없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조남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구제 역으로 인해 사료생산량이 감소하는가 하면 세계 사료곡물가는 물론 환율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협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자”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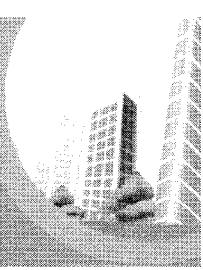
● GSM-102 프로그램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본회는 지난 10월 20일 4층 회의실에서 주한 미국대사관 농무관실 주최로 GSM-102프로그램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관련 국내 기관 및 관련단체, 은행, 기업체 담당자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관심이 집중됐다.

해외 자금공여 은행인 CoBank 싱가포르 지점장과의 직접 전화 연결을 통해 개정 내용에 대한 토의와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 등을 언급했다. 주한 미국대사관 농무관실에서는 이번 공청회에서 토의된 내용과 문제점 등을 정리하여 미국 농무부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10월 26일까지 제출하기로 했다.



● 농림수산식품부

구제역 가상 방역훈련(CPX) 실시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0월 25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OK목장에서 백신 미접종 혈청형 FMD 발생을 가상으로 한 방역훈련(CPX)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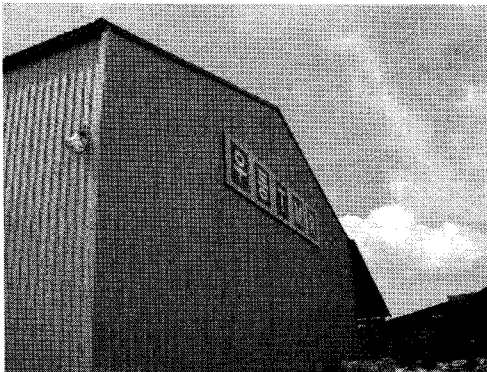
이날 훈련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서규용 장관을 비롯해 경기도, 화성시, 축산관련단체 등에서 300여명의 방역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함으로써 구제역 재발 방지의 결의를 다졌다.

인사 이동(10월 13일자)

- △ 축산경영과 사료계 → 문태섭 사무관
- △ 축산경영과 조사료계 → 하중수 사무관

● (주)우등

본회 특별회원 가입



전남 나주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주)우등이 본회 특별회원으로 지난 9월 6일 가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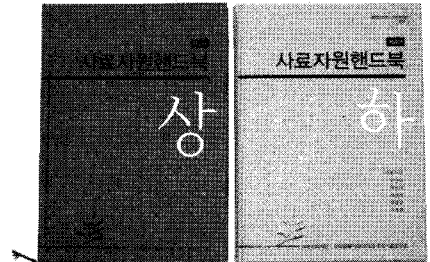
△ 상 호 : 농업회사법인 (주)우등



- △ 대표자 : 윤 태 수
- △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송제리 806-15
- △ 전 화 : (061)333-3445
- △ 팩 스 : (061)333-3446
- △ 일산능력 : 30톤

● 영양사료연구회·목운문화재단

‘제4판 사료자원핸드북’ 출판기념회 개최



▲ 이번에 새롭게 출간된 「제4판 사료자원 핸드북」 상·하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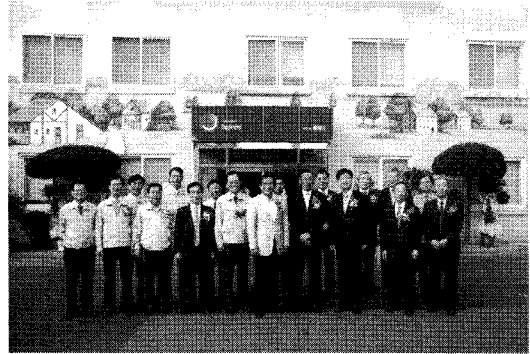
◀ 출판기념회 전경.

목운문화재단 이사장인 한인규 서울대 명예교수가 중심이 되어 출간한 ‘제4판 사료자원핸드북’이 지난 9월 29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된 출판기념회를 통해 일반 관계자들에게 공개됐다.

한인규 박사 등 사료자원핸드북 편찬위원들은 지난 1976년 제1판을 시작으로 1989년 제2판, 1994년 제3판에 이어 그동안 연구 발전된 새로운 이론과 기술을 모두 수록하여 21세기형 ‘제4판 사료자원핸드북’을 탄생시켰다. 이번 편찬에는 서울대학교 하종규·최윤재 교수, 중앙대학교 백인기 교수 등 국내 원로 학자들과 업계 유명인사들이 머리를 맞대어 수년에 걸쳐 제작한 자료로써 그 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

● 고려산업(주)

해표사료의 새이름 해피드 BI 선포식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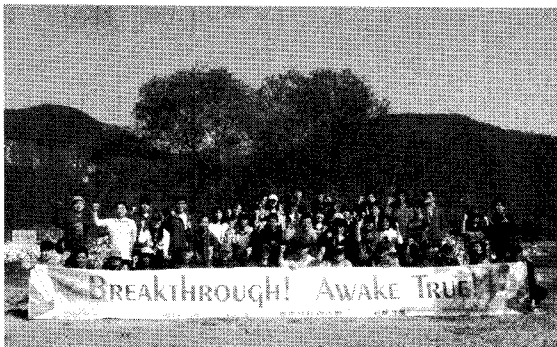
고려산업(주)은 지난 2011년 10월 19일 새로운 BI “해피드”의 선포식을 개최하고, 2011년 11월 1일부로 새로운 이름 “해피드(hafeed)”로 브랜드를 변경하기로 했다.

해표사료의 새이름 “해피드”는 고객과 동물을 행복하게 하는 사료(happy-feed)로 “해피드”의 로고는 고객에게 신뢰와 기쁨을 드리는 기업을 상징하는 스마일이라는 뜻이다.

해피드는 브랜드 변경과 더불어 최상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정된 생산기술 및 철저한 품질관리로 우수한 사료를 생산, 공급할 것을 전임직원이 결의했다.

● (주)트루라이프·부사료(주)

2011년 캔미팅 및 트래킹 개최



▲ 구성원 단체사진



▲ 조별 미션 퍼포먼스 중 한 장면



2011년 (주)트루라이프·서부사료(주) 캔미팅 및 트래킹이 지난 10월 7일, 8일 1박 2일간 경기도 가평군 소재 좋은 아침 연수원에서 실시됐다. 이번 캔미팅은 서부사료, 트루라이프 및 관계사 GMG종돈, 웨스턴 레포피아 등 (이하 서부그룹) 80여명의 구성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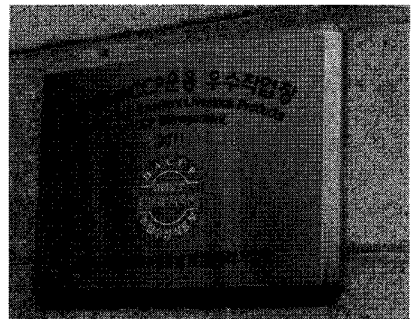
‘돌파! 트루라이프를 일깨워라! (Breakthrough! Awake True!)’란 주제로 구성원간 격의 없고 자유로운 대화를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최종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전략목표와 연계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자유로운 분위기의 캔미팅(Can Meeting)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날은 ▲사전행사 ▲조별 미션수행 ▲다짐의 장의 순서로 6개의 분임조가 ‘벽 없는 조직 문화 만들기’ 미션을 놓고 ‘패러디, 뉴스, 모의법정, 합창’ 등 다양한 형식으로 실행 방안을 풀어냈는데 아이디어 회의부터 연기, 퍼포먼스 등 모든 과정에 평사원에서 경영진까지 전 구성원이 한마음으로 적극 참여해 의미가 컸다.

또한 유기체적 기업문화 창출을 위한 창의적이면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의견들이 여럿 제시되어 모두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다음날 가평 올레길을 같이 걸으며 일정을 마무리 했는데, 서부그룹 전 구성원은 캔미팅으로 충전된 에너지와 다이내믹한 소통의 기(氣)로 비전 달성을 향해 더욱 전력투구할 것을 다짐했다.

## ① (주)우성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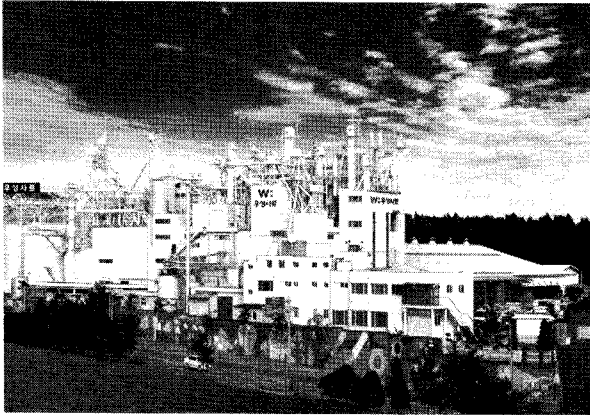
제3사업본부(천안공장), 축산물HACCP 운용 우수 작업장 선정



▲ 큰 사진 맨 왼쪽이 우성사료 김동운 이사(사진 오른쪽은 인증패)



(주)우성사료의 제3사업본부(천안공장, 본부장 김동운 이사)가 최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석희진, 이하 기준원)으로부터 ‘2011년 축산물HACCP 운용 우수작업장’으로 선발됐다.



▲ 천안공장 전경

이번 선발은 최근 2~3년간의 정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계·소비자단체·축산관련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단과 심의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쳤다.

석희진 기준원 원장은 지난 10월 4일 기준원 대강당에서 가진 시상식에서 “이번에 선발된 작업장은 타 업체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 우수성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 ■ 국내 최초 하이 후레이크 사료 생산

우성사료 내에는 3개의 사업본부가 있다. 제 1사업본부는 논산공장, 제 2사업본부는 경산공장, 제 3사업본부는 천안공장을 거점으로 한다.

이중 천안공장은 경기, 강원, 충청 사양가들에게 신선한 사료와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81년 설립됐다.

1983년에 국내 최초로 첨단 가공사료인 하이 후레이크 사료를 생산해 한국 사료산업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 ■ HACCP 시스템 정착을 위한 ‘직원교육’

배합사료공장에서 HACCP 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것이 직원들에 대한 반복 교육이다. 관련 내용을 직원들이 충분히 숙지할 때 그제야 실천의지와 책임감이 생겨나는 것이다.

천안공장은 이를 위해 매월 1일 본부장이 전체 조회를 실시하며, 매일 분임토의를 통해 그날 확인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공유한다. 이는 작업의 능률을 한층 올리는 것은 물론 위험 발생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 ■ 고품질 사료 생산에 역량 집중

국내 배합사료 업체들이 사료의 고품질 및 안전성에 대해 큰 비중을 두지 않던 시절부터

우성사료는 일찍 안전한 고품질 사료 생산을 생존의 필수조건으로 인식하고, 이를 착실히 준비해 왔다. 이는 타 사료업체에도 많은 영향을 주면서 새로운 제품 안전 경영 실현을 선도했다.

정부가 사료공장의 HACCP 인증을 의무화하기 이전인 1996년에 ISO 9002 품질 시스템을 인증을 받는 등 고품질 사료 생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1999년에는 한국능률협회로부터 기업가치 경영 최우수기업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정부가 사료공장 HACCP 인증을 의무화한 이후에는 2005년 12월 27일 경산공장을 시작으로, 2006년 3월 13일 논산공장, 두 달 후인 5월 9일 천안공장이 차례로 인증을 획득했다.

### ① (주)카길에그리퓨리나

FMD재발 방지 위해 특별 방역활동 시동, 전 조직이 방역활동 강화에 총력

지난 10월 24일 (주)카길에그리퓨리나는 날씨가 쌀쌀해지며 질병이 기승을 부리는 환절기를 맞아,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FMD 특별 방역 기간으로 설정하여, 철저한 방역 활동에 온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번 특별 방역 활동은 작년 11월에 발생한 FMD가 국내 축산업에 미친 엄청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돌아보며, 다시는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일년을 돌아보고 준비하는 의도로 기획되었다.

이 기간 동안 전 임직원은 철저한 차단방역, 고객 농장의 철저한 백신 접종과 소독활동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역용품 공급과 함께 특별상황실 가동, 방역 교육 강화 등 여러 활동을 통해 방역 활동을 실시할 것이다.

카길에그리퓨리나는 FMD 방지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지역사회로부터 여러 표창을 받았으며, 이에 만족하지 않고 업계 선두주자로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철저한 방역으로 우리 축산을 지키는 것을 앞장설 계획이다.

